

| 사회적 대화 현장 |

#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직과의 사회연대에 한 발 더 다가서다

## 정기대의원대회서 정규직 전환 시 임금 동결 결의

강은영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 사무금융노조, 직장 올타리를 넘어서다

비정규직은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남용되어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다. 그나마 정부가 세운 정규직 전환 계획도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선별한다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탈락시키거나, 당사자 및 노조와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유지되기도 한다. 그 속도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우분투재단’ 설립 등을 통해 늘 사회연대에 앞장섰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이하 사무금융노조)이 다시 한 번 사회연대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월 2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9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업계획에는 2019년 임단투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물가상승률 1.7%, 경제성장률 2.7%를 더해 4.4%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도급 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외주화된 사업부문을 모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인소싱이 이루어질 경우, 4.4%의 임금인상 요구안 중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1.7%를 제외한 부분을 양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양보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소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또 시설관리 노동자나 콜센터 노동자 등 사업장 내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임금인상 요구안도 제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해당하는 10.9% 또는 월정액 172,000원의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말로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지 않겠다”며 “진정한 정규직화를 위한 실천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는 마중물 역할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2019년 슬로건을 “직장을 넘어 사회연대로! 10만 산별노조 시대를 열자!”로 정하고,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도 의결했다.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통한 10만 산별노조를 목표로 콜센터·IT·사무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별노조의 존재이유에 걸맞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으로 노정교섭의 기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올해엔 노정교섭이 뒷받침되는 산별중앙교섭을 실현하는 것도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김현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정교섭에 밀리지 않는 노조의 실력을 키우겠다”며 “실력 있는 산별노조를 통해 직장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사회와 연대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올해 더 탄력 받을 것

이날 사무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홍근·김병욱·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김성중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2018년 사무금융노조의 가장 큰 성과를 ‘우분투재단’ 설립이라고 평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을 결의한 후, 지난해 4월 사회연대기금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18일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발기인대회에 이어, 지난 1월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전날인 1월 28일 법인등기를 완료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재단 선포 이후 지금까지 총 7개 노사(KB증권·KB카드·에쿠온저축은행·교보증권·신한생명·하나카드·BC카드)가 사회연대기금 출연 조인식을 진행했다. 우분투재단은 올해도 더 많은 노사와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해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분투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은 김성중 전 노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입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으는 데 우분투재단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이사장직을 수락한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서 “우분투재단은 사무금융노조 조합원들의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전해주고 의논을 통해 좋은 의견을 반영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우분투재단은 ‘내가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이 담긴 아프리카 반투어 표현인 ‘우분투’를 따서 만든 재단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의 기금을 모아 불평등·양극화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